'나'를 버리면 두려움 없고 살길 생겨

☞ 19면에서 계속

그렇게 없어질지언정 그 원소는 그냥 남아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원소는 다시 금 또 삶의 보람을 가지고 영원히 세세생생에 그 뜻을 잃지 않고 사실 겁니다.

제가 어느 지원에 갔다가 어디를 놀러 갔는데, 놀러간 게 아니라 지원에 갔는데 스님네들이 "스님, 배 한번 타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돌이 이렇게 섰어요. 돌이 물 가운데도 섰고 물 가장자리에도 섰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섰는데 특별나게 돼 있는 거는 돌이 아니면서도 돌이다. 돌이면서도 그거는 만법을 다 귀정지을 수 있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건 사람이 수 만 명이 그 자리에 섰어도 당해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바다를 꿰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바다에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고 뭐 생명은 전부 지수화풍을 끼고 돌아서 생명체가 되거든요.

앞뒤 잘 살펴보고 살자

그래 우리도 그 생명체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생명체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원소는 항상 생명체가 됐으면, 벌레로 생명체가 됐으면 벌레로 생명체가 된 건 그대로 두고 자꾸 그 벌레가 살아 나오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으로 진화되든지 또는 큰 짐승으로 진화되든지 이렇게 삶이 주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마구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러지만 죽을란다가 아닙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어서 말입니다. 재판관인가 뭐 사자가 끌고 가는데 왜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하냐고 하니깐 그 사자가 하는 소리가 "나도 너 때문에 험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살기를 험하게 살았으니까 험한 길을 가지 않느냐. 그러니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험한 길을 보시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깐 제발 앞으로는 네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네 창고에 가보면 알 거다. 그러니깐 네 창고에 들은 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겁니다. 재판해서 요다음에 다시 나올 때에 그걸로 재판해서 못생기게 나오든지 잘 생기게 나오든지 그것도 연관되구요. 또 삶음,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연관돼 있구요.

직장을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가 이것도 거기에 따라 있고 자식들도 거기에 따라 있고 전부 거기 자기가 살아 나온 데에 삶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 사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사람은 한 번 죽을 때 죽어도 잘 살아야 돼. 죽더라도 생각을 잘 해야 돼."이러더랍니다. 그랬다는 심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사자가 와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그냥 사자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요새 말로 하자면 까만 세단 차 태워 가지고 가죠. 운전수가 태워 가지고 가죠. 허공이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이구 내가 살아있으니깐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참.

내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저 삼막사 올라가는 길을 항상 운동삼아 제가 한번씩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올라 가는데 자꾸 내려다보고 싶어요. 어슬어슬 했는데요. 그래서 내려다보니까 나무 틈에 끼어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왜 죽었나. 어디서 살고 있나. 식구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깐 마음 하나는 착한데 분간을 못해서 식구들 고생을 너무도 시켰어요. 마음은 착하고 좋은데 앞서가야 하는지 나중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간을 몰라요. 그래서 식구들을 얼마나 고생 시켰는지 죽어라고 말을 해서 내쫓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 속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그냥 거기에 쓰러져서 이튿이나 사흘이나 그냥 나무에 끼어서 있으니 죽지 살아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왜 분별을 못하고 살아 가지고 이렇게 남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이런 말을 하니깐 "참 고맙습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닐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뛰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집에 가서 자기 사는 거를 자세히 보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요 다음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러구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저 지서에서 와서 그걸 치웠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몸뚱이가 그저 살고 있으니깐 아이고 이만하면 족해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한 번 다시 뒤돌아도 보고 앞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루하루 가보세요. 가다보면 어떠한 돌쪼가리를 보고도 웃음이 나고, 웃는 것도 웃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웃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휘어져서 쓰러지는 걸 보고도 웃음이 나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기

어떻게 마음쓰고 행동하고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음 생애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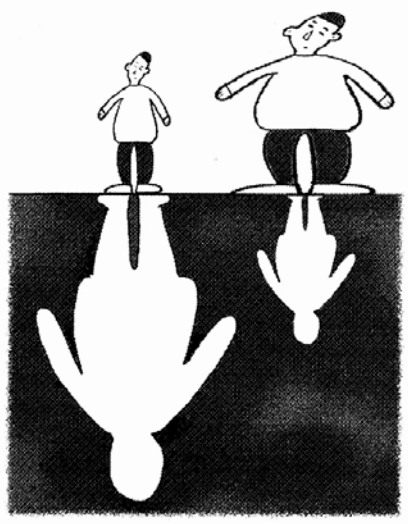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잘 쓰면 세상 편해

때문에 웃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깐 모두 몰라서 그렇지 차에 치여 죽는 사람들도 꼭히 차에 치여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치면은 영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튑니다. 뛰어서 달아나가다가 다시 금 자기 모습을 찾으러 오니깐 모습이 없더란 얘기죠. 모습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누구의 모습이든지 찾아야 자기가 움쭉거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또 사람이 치여야 만이 자기가 발떨어질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한번 잘 쓰고 걸음을 걸어보세요. 세상이 다 편안하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다면 두려움도 없고 또 무서움도 없고 고달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동시에 거기서 살 길이 생깁니다. 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느니 네가 있느니 식구가 있느니, 나는 이렇게 살아왔느니 저렇게 못 살았느니, 남한테 돈을 떼이고 못살게 됐느니 이러고 오니까 그게 연방 끈이 끈을 맺어요. 끈이 끈을 이어져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항상 과거는 묻지 말란다 이러고 그냥 끊어 버리세요. 과거는 아까도 과거예요. 아까 다리를 못 딛었다 하더라도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딛고 가는 것을 생각하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네들이 공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하고 싸울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못났다 잘났다 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구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다 빠져서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거 빠지는데 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살이가 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안 그렇습니까. 살 량으로 애를 쓰니까 그냥 더 더욱 애가 써지죠.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만 주인공이 있다면 주인공과 둘이 아니게끔 하나가 됐을 때는 바로 자기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깐 죽이든지 살리든지 겁을 내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고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 하더래도 겁을 내지 않구요. 태워 죽인다 해도 겁을 내지 않구요. 찌른다 해도 겁을 내지 않구요. 어떤 것에도 겁을 내지 않으니까 겁내지 않는 만큼 돌보게 되죠. 이 놈은 가다가 그냥 찔리든지 뭐든지 저거하니까 즉 군인들 쭉 서서 지키고 보디가드 쭉 서서 지키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주인공이 보디가드가 돼서 항상 뒤따르면서 돌보게 돼요. 그거를 절간에선 신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디가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두뇌에도 입력되는 컴퓨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살아오는 대로 입력, 생각을 하면 그게 그냥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보면 입력될 것도 없고 안될 것도 없고 그래서 입력이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안되고 좋게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대로 앞서의 입력된 거는 없어지면서 좋게 입력된 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도리를 알면은 컴퓨터를, 아무리 컴퓨터가 사람을 집어먹는다 하더라도 집어 먹히지 않아요. 번호를 잊어버린다. 이거를 다 공장까지 잊어버린다 회사까지 잊어버린다 이래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요. 몸에서 전부.

그러니깐 저는요, 무엇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이 절에 많아서 남들을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두 알고 있겠죠.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돈을 받는 사람보다도 돈이 더 없거든요. 허허허. 돈이 없는데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내가 돈을 남을 못 주는데 돈이 없는 까닭에 돈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딴 사람이 들을 땐 얼마나 쓸만하고 많을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들을 아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못 준다. 그러고 돈을, 아마 우리 절에 스님네들은 다 그럴는지 모르죠. 돈을 보면은 이거를 얼른 치워야지 둬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그것을 다 꺼내서 줄 수 있고 없어도 겁이 나지 않는 거죠. 죽으면 죽으니까.

과거 끊고 현재를 보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보면은 '어이, 다리가 아프실 텐데 어떡하나. 저걸 모두 길상을 해서 놓고 앉아 계시게 했으면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이 문뜩 문뜩 듭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시고 다리 아프신 분들은 참 길상에 앉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 하고선 그저 당장 급하면은 급한 것부터 해결합니다. 그러니깐 여러분도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게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자랑을 하겠지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한 푼 있으면 두 푼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돈을 얻을 때는 네 푼, 다섯 푼 얻고 이렇게 해서 고생들 하지 마시고 요즘엔 더 늘려서 하면 것도 줄여서 좀 알뜰하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두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떠지면은 그렇게 밝게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밝게 보이고 밝게 생각이 되고 조금도 혐집이 나게 하지도 않으면서 새삼스럽게 사는 것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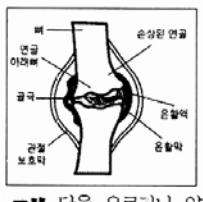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서 다리 아프셨을 텐데 지금도 다리 아프시죠, 그렇지만 다리 아프신 건 좀 일어나서 운동하시면 되구요, 절대 돈 쓰는 거, 생각하는 거,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 식구들을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없애면서 잘 하셨으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좀 착이 있어서 생각이 나더래도 생각날 때에 '아 그 못생긴 노파가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허허허

※위 법문은 2000년 11월 5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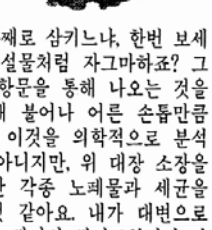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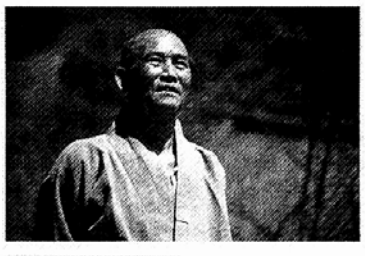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심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물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들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엄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집중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고함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2) 3437-8282